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은보다 더 귀하신 주/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예수 아름다우신 /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다같이
대표기도		이지영
*성경봉독	마5:17-48	이상진
말씀	산상수훈 3 -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시는가?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새로운 계명을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뤄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뤄지리

산상수훈3-예수님은 율법을 없애시는가? (마5:17-48)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심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면 그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34a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37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 대어라.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분명 구약 율법을 계승하시면서 동시에 구약 율법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6개의 구약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기왕이면 더 쉬워졌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들어 보면 기존 율법보다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기존 율법이 단순히 행위만 요구했다면 (실제는 아님), 새 율법은 마음과 동기까지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 (미련한 놈),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 그 속 뜻을 예수님께서는 형제 간에 진정으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십니다. 인류의 첫 살인인 가인의 살인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두번째는 간음의 문제입니다. 그 근원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음욕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만 품었다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음욕은 우리의 은밀하고 뿌리 깊은 욕구여서 다스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어떤 종교적, 법률적 요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추가로, 죄 짓는 눈과 오른손을 잘라내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면서 죄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가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다음은 이혼에 관한 율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내와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 24:1) 이는 이혼당하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지, 남자가 이혼증서만 주면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오로지 율법의 문자적 의미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를 자신을 편한대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그 다음은 맹세에 관한 율법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맹세를 어기지 말고, 특히 주께 한 맹세는 꼭 지키라’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맹세가 난무하였습니다. 이는 그 사회가 신뢰가 약하고, 맹세가 깨질 가능성이 많은 사회임을 반증합니다. 맹세할 때 우리는 쉽게 과장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솔직하고, 투명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복수와 관련된 율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에 함께 기록되었으며, 흔히 동해동형법 (해를 입힌 대로 똑같은 벌로써 상응한다)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이 생긴 배경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복수를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복수할 때 잘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 대고,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성경도 원수를 갚지 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 레 19:18) 또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시 3:7, 롬 12:19) 예수님은 사람들이 율법의 하나만 알던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새 율법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를 위해 예수님이 주신 힌트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5) 어느 목사님은 우리 진짜 원수는 사탄이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들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지키기 어려운 새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진짜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 중에, 또 오늘날 우리 주님에도 이런 높은 기준으로 사시는 크리스찬들이 계십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입니다.

말씀산책

두번째 해석은, “율법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 지키는 게 자기의 자랑이자 상급이요, 권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를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려주면서 진짜 율법을 지키려면 이 마음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바리새인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적으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구약율법과 새 율법을 다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려 하는 마음자세, 이것이 이웃에게 확대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자세가 생긴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진정한 제자로 산다는 것은 꼭 성인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공호와 사랑으로 바로 세워지면 이미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오늘 제시한 기준에 도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못한 자들도 여전히 제자입니다. 지금은 모자라도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가면 주님이 감동하시고 힘주셔서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와 제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여러분은 평상시 예수님의 새 계명 (왼뺨도 돌려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등)을 듣고 어떻게 생각해 오셨나요?
2. 제자가 되는 것은 결국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나눠보세요.
3.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터치가 된 부분과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도 AKPC 장학생 선발

대상 : 일반대학/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대학원생
접수 : 교회 홈페이지(akpc.org)를 통해, 10월 23일(주일) 마감
문의 : 장학위원회 (akpc.scholarship@gmail.com)
지정헌금으로 장학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범 목사님 심방

김상범 목사님께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심방하십니다.
가능한 날짜, 시간을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줌, 대면 심방 모두 가능합니다.



팀원 모집

찬양팀 - 건반 1, 남자 싱어 1 (문의: 조학영)
예배팀 - 카메라 및 자막 담당자 (문의: 박정호)

공동의회 결과

지난 주 공동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2025년조 직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장로 시무: 김상철, 김우진, 손종래, 이상엽, 이인권, 천금화
안수집사 시무: 김선숙, 김성은(Thomas), 김영수, 김윤지, 동지현, 백인엽,
손인숙, 양민희, 오세권, 이동식, 이성민, 이순희, 조혜경,
최민정, 최영지, 추재욱, 한현주, Steve Chun
권사 시무: 고조이, 김정희, 배정주, 서영희, 서인경, 손영주, 이민숙,
이숙자, 이혜경, 조은정, 최영선, 허춘화

제직회

10월 23일(주일) 2부 예배 후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제 50권 39호

OCT 16
2022

PSAL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지도장로

김상범
김종환

cptksb3@gmail.com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새가족 팀장

오은비
박사론

eunbe.or@gmail.com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